

정기건강검진이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을 교정시키는가?

강석철, 김용언, 정희수, 송윤미, 이정권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연구배경: 생활양식과 식습관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건강검진이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을 변화시키는지 Framingham Point Scores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.

방법: 1996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 건강의학센터에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20~79세의 수진자중 건강검진을 5회 실시한 3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자료는 수진자의 문진기록과 전산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매회 건강검진시 각 위험요인의 위험점수와 위험점수의 합, 절대위험도를 산출하여 건강검진이 반복되는 것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였다.

결과: 5회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남자와 여자 모두 연령 위험점수는 자연적으로 증가소견을 보였다. 남자에서 흡연, 총콜레스테롤, HDL-콜레스테롤, 수축기 혈압의 위험점수가 감소하였으나($P < 0.0001$) 가중치가 큰 연령 위험점수의 영향으로 총 위험점수($P < 0.0001$)와 절대위험도($P = 0.0002$)는 증가하였다. 여자는 HDL-콜레스테롤의 감소 외에 다른 위험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총 위험점수($P < 0.0001$)는 증가하였으나 절대위험도($P = 0.3238$)는 변화가 없었다. 고위험군이 매우 적었으며 건강검진이 반복되는 동안 증가하는 소견은 없었으며 비만도에서 비만군은 매우 적었으며 증가하는 소견은 없었다.

결론: 5회 반복된 정기건강검진이 관상동맥질환의 총 위험점수와 절대위험도를 감소시키지 못했다. 이는 가중치가 가장 크고 불가역적인 연령 위험점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였고 가역적인 위험요인들의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. 절대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기건강검진 이후 지속적인 사후대책과 관리가 중요하다.

중심단어: 관상동맥질환, 위험요인, 정기건강검진, Framingham Point Scores